

고흥 반전(錢)여행 2차 신청 조기 마감... 지역관광 활기

3차 신청 오는 6월 예정, 여름철 관광객 유치 기대



남양면 우도 레인보우교 사진

/고흥군 제공

/이유빈 기자

/김윤성 기자

고흥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지역사랑 휴가지원 시범사업 '고흥 반전(錢)여행' 2차 사전신청이 관광객들의 높은 관심 속에 조기 마감됐다고 19일 밝혔다.

'고흥 반전여행'은 관외 거주 관광객이 여행 사전신청 후 고흥에서 관광을 진행한 뒤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여행 경비의 50%를 모바일 고흥사랑상품권으로 환급받는 관광 인센티브 사업이다. 앞서 진행된 1차 신청(3,000여 명)에 이어 이번 2차 신청(5,000여 명) 역시 빠르게 마감되며 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군은 최근 여행 경비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과 함께 우주·해양·자연·먹거리 등 고흥만의 특색 있는 관광자원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이 관광객들의 호응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보성군, 보성사랑상품권 '착(chak)' 모바일 결제 확대

보성군은 오는 22일부터 6월 중순까지 보성사랑상품권 이용 편의를 높이고 소상공인 결제환경 개선을 위해 '착(chak)' 앱 기반 모바일 결제시스템 도입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한국조폐공사 주관으로 진행되며, 관내 카드형 보성사랑상품권 가맹점 1,085개소를 대상으로 '착(chak)' 앱 기반 모바일 결제시스템 설치를 무료로 지원한다.

모바일 결제시스템이 도입되면 이용자는 스마트폰을 활용해 보성사랑상품권을 보다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가맹점은 결제 절차 간소화와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 지역 내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설치는 한국조폐공사 관계자와 군민으로 구성된 '착(chak)' 서포터즈가 직접 가맹점을 방문해 진행한 다.

"이틀만에 마감 땅끝해남 반값여행" 오는 26일 2차 접수

해남군은 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땅끝해남 반값여행' 2차 접수를 오는 26일부터 시작한다.

땅끝해남 반값여행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지역사랑휴가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해남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여행 경비의 50% 이상을 모바일 해남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 주게 된다. 개인은 5만원 이상, 2인 이상 팀은 10만원 이상 소비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환급 한도는 개인 최대 10만원, 팀 최대 20만원이다. 특히 청년 신청자에게는 환급률을 70%까지 확대 적용해 청년 개인은 최대 14만원, 2인 이상 팀은 최대 28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참여 대상은 해남군외 지역 거주 관광객으로, 강진·영암·완도·진도 등 인접 지자체 거주자는 제외된다. 지원금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해남 지역 관광지나 축제 등 2곳 이상을 방문한 뒤 사진 인증을 해야 한다.

진도군, 고추 바이러스병 현장 진단 서비스 제공

진도군은 고추 바이러스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원예작물 바이러스 현장 진단 서비스'를 본격 운영한다. 고추 바이러스병은 주로 총채벌레나 진딧물 등 매개충에 의해 전염되며, 감염 시 수확량이 감소하고 품질의 저하를 일으킨다.

하지만, 현재까지 뚜렷한 치료제가 없어 발생 초기에 감염된 나무를 신속히 제거하고, 매개충 방제와 더불어 포장 주변의 잡초와 기주식물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다.

이에 진도군농업기술센터는 작물의 즙액을 이용해 5분 이내에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키트를 활용하여 농가들의 신속한 대응을 돕고 있다.

고추·오이·토마토 등 원예작물의 TSWV·CMV·역병·꽃마름병 등 병해충 감염 여부를 진단한다.

/이가영 기자

장흥군, "떠나장! 흥 그루터기 힐링캠프 in 서울" 운영

장흥군은 아동들의 정서적 안정과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 제공을 위해 오는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2박 3일간 서울 일원에서 '떠나장! 흥 그루터기 힐링캠프 in 서울'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프는 청소년그루터기재단의 전액 후원으로 추진되며, 지역 아동 30명을 포함한 총 32명이 참여한다.

특히 문화·체험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농산어촌 아이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힐링의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 아동들은 장흥에서 출발해 KTX를 이용하여 서울로 이동하고, 귀가 시에는 항공편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경험하게 된다.

이를 통해 단순한 여행을 넘어 아이들에게 색다른 이동 경험과 폭넓은 시야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정근 기자

완도교육지원청, '완도 알기'로 지역 교육 전문성 강화



완도 타워 사진

/완도교육지원청 행정팀 제공

전라남도완도교육지원청(교육장 이철영)은 5월 18일(월) 관내 유·초·중·고 저경력(1~5년차) 교사 및 전임 교사를 대상으로 '2026. 교육공동체(교원) 완도 알기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교육과정 지역화 기반 마련, 지역 이해 및 교육 전문성 강화, 교원 간 네트워크와 협력 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기획되었으며, 2026년 교육자치협력지구 예산을 활용하여 운영되었다.

참가 교사들은 완도수목원, 완도정도리구계등, 장도 청해진 유적지, 완도타워를 순차적으로 탐방하는 하루 일정으로 완도의 자연·지리·역사를 체험하였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완도군청 등 지역사회 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운영하였으며, ▲완도의 자연환경과 생태 체험, ▲지역 지리 및 역사 이해, ▲청해진 유

적을 통한 해양문화 탐방 등을 통해 교사들이 지역 자원을 수업에 직접 연결하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이철영 완도교육지원청 교육장은 "교사가 지역을 깊이 알아야 학생들에게도 살아있는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교과와 지역 자원을 연결하는 융합형 수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완도교육지원청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기반 교육에 대한 교원 역량 강화, ▲완도군의 역사·문화·생태에 대한 심층적 이해 증진, ▲교과와 지역 자원을 연결하는 융합형 수업 설계 능력 향상의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지역과 학교가 함께하는 교육 생태계 조성을 위해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가영 기자

자연으로 가는 길 구례

지리산과 섬진강의 풍요로움을 담은 구례군 로컬마켓

구례군 로컬마켓

구례군 로컬마켓

<https://smartstore.naver.com/guryeshop>